

#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1999년 3월 19일 (금)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최 :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후원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협찬 : 한국마사회

#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1999년 3월 19일 (금)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최 :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후원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협찬 : 한국마사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최만자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2:30 - 2:40      등록
- 인사말 / 김윤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 2:40 - 3:10      조사결과 발표 /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
- 3:10 - 4:30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
-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현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김중태 (통일부 지원1과 과장)
- 정강자 (한국여성연우회 공동대표)
- 조연지 (말북여성)
- 4:30 - 5:3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자료집 목차

- ◆ 조사결과 보고서 / 김영리 ----- 7쪽
- ◆ 토론 1 / 조흥식, 탈북여성의 복지와 지원대책 ----- 41쪽
- ◆ 토론 2 / 정현덕,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여성외식과 통일외식을 중심으로 --- 47쪽
- ◆ 토론 3 / 이금순, 북한이탈여성주민의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방향 ----- 51쪽
- ◆ 토론 4 / 김중태,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과 계획 ----- 55쪽
- ◆ 토론 5 / 정강자, 민간단체 입장에서 본 지원방안 ----- 59쪽
- ◆ 부록 /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생활실태 설문지 ----- 61쪽

◆ 문의 : 서울시 중구 경동동 1가 38-84 여성명회의 집 4층 명화를 만나는 여성회  
전화 02-2364-8649, 2275-4860 전송 02-2275-4861 천미안 WWP

◆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생활실태 조사사업(1998년 8월 - 12월)은 대통령직속 여성  
특별위원회의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김 열 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

## 목차

### I. 시작하면서

1. 조사연구 배경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의 목적과 접근방법
------------	-----------------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II. 몸말

1. 경제생활
 

1)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	4) 소독정도와 주요수입원
2) 주거상태	5) 직업훈련과 취직
3) 직업유무	
2. 가정생활과 여성의식
 

1)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2) 여성의식
----------------	---------
3. 사회문화생활
 

1) 사회활동의 정도와 인간관계	
2) 일상적 문화생활에서의 어려움(결혼, 음식, 언어, 가치관과 사고방식, 대중문화)	
4. 남한사회의 인지도와 통일외식
 

1)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3) 여성관련 사회제도에 관한 인식
2) 남한여성에 대한 인식	4) 통일외식
5. 종합적 특성
 

1) 경제적 측면	3) 정서적 심리적 측면
2) 사회문화적 측면	

### III. 맺으면서

1. 지원방안을 위한 몇가지 생각들
 

1) 정부차원 : 법적 제도적 차원	
2) 민간단체 차원 : 사회심리와 인간관계 차원	
2. 과제





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1994년 탈북자들에 관한 지원법이 개정된 이후 생활정착금도 줄고, 요즘과 같은 IMF체제하에서 탈북자들은 거의 실업의 상태에 놓여있다. 하물며 해외의 일차대상이 여성인 남한 사회경제구조에서 탈북여성들의 경우는 더 악조건일 것이다. 탈북여성들의 삶과 사회적 위치가 불안정하고 대부분 영세민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느니만큼 여성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본다.

셋째, 민족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사회에서 탈북여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위치자를 것인가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여성들을 직결적으로 볼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위한 준비의 한 실마리이고, 정치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한 파트너이기도하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 2) 조사 목적과 접근 방법

본 조사의 일차적 목적은 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남한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예외사항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경제생활, 가정생활, 사회문화생활, 여성 의식과 통일 의식, 남한사회의 인지도 등을 알아보았다. 가능한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태경 - 정작기간, 연령, 경제적 수입의 정도, 북한에서의 사회적 배경 등 - 과 관련하여 그 연관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탈북자들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탈북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사회적 특성이 있는지 주시하였다. 그래서 탈북여성들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탈북여성들의 여성 의식과 통일 의식을 읽어봄으로써 남한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맞닿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구조적 문제 뿐 만아니라 개인심리적 차원까지 접근하

---

자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년, 언세대 통일연구원 ;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12 ; 오혜경,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석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5 ; 그의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거의 탈북남성들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는 커다란 차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였다.) 탈북남성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자 하였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관한 기존의 연구처럼 탈북여성들이 남한체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문제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1994년 이후에 탈북하였으므로 그들의 적응과정을 면밀히 추적한다는 것은 본 조사 연구의 성격상 어려움이 따랐고, 두 번째는 사회적응이라는 개념으로 탈북여성들의 삶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북한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다소 남한체제 중심적 시각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조사연구는 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이번 조사결과가 기반이 되어 앞으로 체제중심적 사고가 아닌 진정 사회통합의 과정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탈북여성의 삶이 분석, 평가되기를 기대해본다.

##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 탈북여성 34명 (31세대)

- 탈북시기 : 1987년 이후 탈북한 여성부터 1998년 현재 정부기관에서 보호기간이 끝나고 사회에 편입된 여성
- 연령 : 20대 이상 - 70세 이하의 성인 탈북여성들
- 귀국 전까지 북한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
- 표집방법 :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소개

본 회가 설문조사한 탈북여성들은 관련부처의 협조하에서 진행되었기에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자율권이 없었다. 현재 남한에서 생존하고 있는 96명의 여성 중 중국교포와 20세 이하, 70세 이상의 여성을 제외하고 귀순연월에 있어서도 1987년 이후 탈북한 여성으로 제한하니, 그 가능한 수는 약 50명 정도였으며, 관련부처가 소개한 여성은 40명이었다. 이중 인터뷰를 한 여성은 36명이었고, 설문조사결과가 유효한 경우는 34명이었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성에 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한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들의 개인적 특성은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①귀순시기별	귀순시기	1987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총계
	인원	4명	2명	2명	6명	16명	4명	34명
②귀순형태별	귀순형태	가족동반			단독		총계	
	인원	33명			1명		34명	
③연령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총계	
	인원	12명	8명	3명	8명	3명	34명	
④결혼유형별 <sup>3)</sup>		미혼	유배우	사별	독신월남	총계		
	복합	10명	19명	5명	--	34명		
	남한	9명	17명	0명	8명	34명		
⑤학력별	학력	인민학교졸	고등중학교졸	기술/전문학교졸		대졸	총계	
	인원	2명	15명	10명		7명	34명	
⑥담당여부별	담당여부	담당		비담당		총계		
	인원	7명		27명		34명		

## 2) 조사방법

설문지는 본 연구소가 작성하여 탈북여성의 사전 시험조사(Pre-Test)를 거쳐, 조사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①조사방법 : 일대일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한 조사원들의 기입방법

②분석방법 :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분포,  $X^2$

③표본오차 : 95%신뢰수준하에서  $\pm 0.05\%$

④조사기간 : 1998년 9월 19일 ~ 11월 6일

한계도 있었다. 탈북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양적연구를 하기에 는 현재까지의 여성탈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뚜렷한 일정정도의 경향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성이나 변수에 따른 유의 미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심층면접을 함께 함으로써 그 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3. 미혼여성으로서 탈북하였다가 남한에서 남한출신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1명이다. 또한 북한에서 결혼하였으나 배우자와 함께 탈북하지 못한 여성이 3명이고, 북한에서 사별한 후 탈북한 여성이 5명이므로 탈북 이후 남한에 혼자 또는 자녀들과 함께 북한으로 사는 여성은 8명이다.



## II. 몸말

### 1. 경제생활<sup>4)</sup>

#### 1)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

탈북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탈북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록 남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sup>5)</sup> 할지라도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더 악화되는 추세이며, 무계획적인 소비행태와 돈의 개념을 잘 몰라서 사회비용이 더디다는<sup>6)</sup> 설문조사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탈북여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응답한 탈북여성들의 41.23%(14명)가 자신들은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못사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아주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경우와(5.9%, 2명) 합한다면 약 반수 정도가 스스로 못산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는 경제생활 정도의 상대적인 의식이므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다를 수도 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남한생활에 관한 제감도를 북한생활과의 비교를 통하여 표현하곤 했기 때문이다.

〈표 3〉 스스로 생각하는 남한에서의 생활정도      단위 : %(명)

아주 잘사는편	잘사는편	그저그렇다	못사는편	아주못사는편	총계
2.9 (1)	14.7 (5)	35.3 (12)	41.2 (14)	5.9 (2)	100.0 (34)

또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돈벌기와 취직은 매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표4참조)

4. 주거상태, 가정의 월소득과 주요소득원은 세대별로(31세대)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34명) 조사한 것이다.

5. 박종필, 김영윤, 이우영, 「북원이탈 주민의 사회비용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12. 85-86쪽.

6. 송덕룡, 강대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연세대 통일연구원.

7. 오해영, 「기초 북한공포의 남한사회적응 실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5.

〈표 4〉 돈벌기와 취직에 대한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어려운 정도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그저그렇다	별로어렵지않다	매우어렵지않다	총계
돈벌기	16(47.1%)	15(42.2%)	2(5.9%)	1(2.9%)	0(0.0%)	34
취직	23(67.6%)	7(20.6%)	1(2.9%)	3(8.8%)	0(0.0%)	3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려운지 그들의 소득의 규모와 자산의 크기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탈북이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로 주택소유로 표출되기에 주거형태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소득은 주로 직업생활을 통하여 창출되거나 직업의 유무와 주요 수입원을 알아보았다.

## 2) 주거상태

탈북여성들은 대부분 단독주택(29%, 1명)이나 연립주택(8.8%, 3명)보다는 아파트에서(88.2%, 30명) 살고 있고, 자기 집을 가졌거나(2.9% 1명), 전세로 살기보다는(14.7%, 5명), 유상임대아파트에서(82.4%, 28명) 살고 있다. 주택의 소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의 경우는 남한에서의 정착시기가 오랜 된 여성의 경우에 두드러진다.<sup>8)</sup>

남한에서 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주택마련(29.4%, 10명), 그리고 임대료나 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주택 관리(29.4%, 10명)인데, 이는 지출이 가장 많은 제1순위가 주거비라고 (55.9%, 19명) 답변한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3) 직업유무

탈북여성들이 스스로 밝힌 직업은 전업주부가 12명(35.3%), 학생이 7명(20.6%), 사무직여성이 4명(11.8%), 무직 5명 (14.7%), 부업주부 2명, 서비스직 2명, 자영업이 2명 (각 5.9%) 인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여성은 10명(29.4%)이고, 현재 일하고 있지 않는 여성은 학생 7명(20.6%)<sup>9)</sup> 포함하여 24명(70.6%)이다. (표5참조)

8. 87년도에 탈북한 여성들의 주거형태가 전세이고, 94년도에 탈북한 한 여성의 주거형태가 자가이며 그 외에는 모두 유상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단, 98년도에 탈북한 한 여성이 전세로 사는 예외가 있다.

9. 학생이라고 답변한 여성 중 대학생은 3명이고, 그의 4명은 요리, 미용 등 기술자격을 얻기위한 직업준비교과 다니는 직업훈련전문학교생,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총회교육원생이다.

〈표 5〉 직업

단위 : % (명)

전업주부	부업주부	학생	사무직	서비스직	자영업	무직	총계
35.3 (12)	5.9 (2)	20.6 (7)	11.8 (4)	5.9 (2)	5.9 (2)	14.7 (5)	100.0

그런데 그들이 북한에서 생활할 때는 주부(2명)와 학생(3명)과 무직(2명)을 제외한 27명의 여성들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담당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여성들이 북쪽 남한제제에 상응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sup>10)</sup> 이는 그들 또한 주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다시 재검증해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점은 탈북여성들의 일에 대한 높은 의지력에서도 나타난다. 82.4%의 탈북여성들이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0.6%의 여성들이(7명) 전문직을, 14.7%의 여성들이(5명) 음식점 경영 등의 자영업업을, 14.7%의 여성들이(5명) 행정·관리직을 선호하고 있다. 그외 사무직, 서비스직(미용사)이 각각 2명(5.9%), 생산직, 판매직이 각각 1명(2.9%)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싶다는 여성이 2명, 아무일이나 하고 싶다는 여성이 3명(8.8%)이다. 더욱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성들은 일을 해야 한다고 32명(94.2%)의 탈북여성들이 생각하고, 탈북여성 전원(34명) 경제적 여건이 좋아도 여성은 남성처럼 직장을 가져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탈북여성들의 일하고 싶다는 욕구는 단순히 현재 경제적인 궁핍함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목적만은 아닌 듯 하다. 그들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을 실현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 사회에서 습득된 노동권과 노동의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직접적인 매개는 직장생활일 것이다.

탈북여성들이 일하고 싶다는 희망과 의지는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가능한가라는 현실성의 문제와는 별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남한사회에 편입한 이상 그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은 우선적인 일일 것이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3%가 정부의 알선에 의해서 취직했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정부의 알선으로 취직한 여성은 28.6%에 지나지 않았다.<sup>12)</sup> 즉, 정부가 취업알선이나 경제적 지원을 탈북자들의 가족단위로 사그함으로써

10. 한만길,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5권 2호, 1996, 민족통일연구원, 231-232쪽.

11. 윤덕룡, 강대규, "탈북자의 실업과 민부적처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연세대 통일연구원, 172쪽.

12.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탈북여성은 총 14명인데 이중 정부알선에

남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여성을 이차적으로 배제하는 점은 없는지 재고해볼 일이다.

남한에 정착한 후 지금까지 전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20명의 여성들에게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더니, 자녀양육문제 또는 임신 때문이 4명,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3명, 직장구하기가 힘들어서가 2명, 나이나 건강때문이가 6명, 학생이 4명, 직업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 1명이었다.

일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 14명에게 일한 기간을 물으니, 6개월 이하가 8명이고, 6개월-1년이 3명, 1-2년 1명, 3-5년 1명, 5년 이상이 1명이었다. 예전에 일한 적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4명) 모두다 1년 이하였다. 그들이 직장을 그만둔 주요한 사유는 일이 맞지 않아서가 2명, 결혼때문이가 1명, 건강상으로 1명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탈북여성들은 거의 직장생활의 경험이 없거나 짧다고 보아야 하며, 현재 직업을 가진 여성 중에서도 직장생활을 지금 시지한 단계의 여성이 대다수이다.

#### 4) 소득경도와 주요수입원

탈북여성들의 소득액을 보면, 가경의 월소득이 50만원 이하가 14명 (35.3%), 70만원 이하가 8명(23.5%), 100만원 이하가 7명(20.6%), 200만원 이하가 4명(11.8%), 300만원 이하가 3명(8.8%)이다. 결국 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경이 58.8%로 반이상인 셈이다. (표 6참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입 자체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내에서 고정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15명이며(44.4%), 본인이 아닌 아들이나 남편, 아버지가 직업을 가진 경우는 11명(부부공동직업 2명 포함)에 불과하고,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여성은 10명이다.<sup>13)</sup>

〈표 6〉 가정의 월소득

월소득	0-50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총계
인원(%)	14명(35.3%)	8명(23.5%)	7명(20.6%)	4명(11.8%)	3명(8.8%)	34명(100%)

주요수입원은 월급이 38.2%(13명)로 가장 높고 강연비가 32.4%(11명), 종교단체나 정부 보조금이 14.7%(5명), 자영업 소득이 11.8%(4명), 은행예금이자 2.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의뢰 위치가 된 사람은 4명이고,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3명,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3명, 자기 스스로가 4명이었다.

13.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형태가 18명인데, 그중 남편이 고정된 직업이 없고 부인(탈북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6명, 부부 모두가 고정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명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4명의 탈북여성들은 주로 가족의 수입(30%)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남편비(25%) 또는 정부나 종교단체의 보조금으로(20%) 살아간다. 지금보다 수입이 늘면 자숙을 하고 싶다는 여성이 41.2%(14)이고 주택마련을 하겠다는 여성이 두 번째로 23.5% (8명)을 차지한다.

## 5) 직업훈련과 취직

〈표 7〉 직업훈련 경험과 도움 받은 정도

단위 : 명

	훈련받은 경험		도움받은 정도		
	있다	없다	도움이 됨	그저그렇다	도움이 안됨
전체 (34)	12 (35.3%)	22 (64.7%)	6	3	3
탈북시기					
97년이전(14)	1	13	0	1	0
97년이후(20)	11	9	6	2	3
직업					
전업주부(12)	2	10	0	1	1
부업주부(2)	1	1	0	1	1
학생(7)	4	3	3	0	1
무직(5)	2	3	1	1	0
직업소유자(8)	3	5	2	0	1

탈북여성들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12명(35.3%)이고 그 중 도움이 되었던 경우가 50%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곧 취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 7〉이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것은 97년 이전에 탈북한 여성보다는 97년 이후에 탈북한 여성들이 그 이전 보다 직업훈련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 2. 가정생활과 여성역할

### 1)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여성들의 반수가 부부와 자녀의 가족형태(30%)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높은 가족형태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3명이다. (38%)

〈표 8〉 가족형태

단위 : 명(%)

혼자	부부	부부와 자녀	부과 자녀	모와 자녀	자녀	기타	총계
25.9	25.9	16(50.0)	25.9	7(20.6)	3(8.8)	25.9	34(100.0)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이나고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반수가 경제적 문제(17명)라고 답변하였고 그다음이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5명) 열거하였다. (표9참조) 북한에서 생활할 때도 힘들었던 점이 경제적 문제(17명), 가족의 건강(4명)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표10참조) 이는 남한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경제문제는 사회적으로 발생한 식량난에서 기인하지만, 남한사회에서는 경제의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생존해야 한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9〉 남한 가정생활의 어려움

단위 : 명

경제적문제	가족의건강	주택문제	사생활의보호	북가족그리움	남편폭력	기타	총계
17(50.0%)	5(14.7%)	3(8.8%)	2(5.9%)	1(2.9%)	1(2.9%)	5(14.7%)	34(100.0%)

〈표 10〉 북한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단위 : 명

경제적문제	가족의건강	사생활의보호	실분계급	남편,식당갈등	주택문제	없음	총계
17(50.0%)	4(11.8%)	4(11.8%)	2(5.9%)	2(5.9%)	1(2.9%)	4(11.8%)	34(100.0%)

북한에서의 가정생활과 남한에 정착한 이후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탈북이라는 상황과 함께 변화된 현상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현 설문조사에서는 그 연관성의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북한에서는 계급성분으로 인한 사생활보호문제와 장래성이 보장 받지 못했던 점이 남한사회에서는 해소가 되었지만, 그대신 탈북자라는 특성으로 인한 사생활보호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는 점(2명)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주택마련의 문제가 남한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3명),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1명) 또다른 어려움으로 자리잡았다.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14.7%)<sup>14)</sup> 대체적으로 북한에서의 가정생활의 어려움보다 남한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남한정착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안정된 직장이 없고 취직이 잘 되지 않는 남편의 입지로 인한

14.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첫 번째는 직업이 없어서(44.1%), 두 번째는 능력부족(17.6%)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적인 갈등이 가장 크고(17명의 대상자 8명이 응답), 그외에 성격차이(2명)나 건강(1명)문제도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도 6명이나 되었다. 반면에 북한에서 남편과의 힘든 점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고(24명의 대상자 중 3명이 응답) 오히려 시댁과의 관계(3명)라든가, 순종을 강요한다는(3명), 대화가 없거나(2명), 사회체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2명), 과음(2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힘든 점이 없었다고 응답한 여성도 6명이었다.

남한에 정착한 후, 어머니의 입장으로(총 21명)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는 요소는 종교생활(3명), 옷차림(2명), 남녀관계에서의 역할이나 태도(2명), 정치와 사회를 바라다보는 입장(2명), 불순종(1명)이며, 아쉽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이 9명이었다. 반면, 딸의 입장에서(총 7명) 부모를 보았을 때 차이를 느끼는 요소는 연예관과 결혼관(1명), 옷차림(1명), 대중문화의 이해차이(1명)이며, 없다고 응답한 여성이 4명이었다.

## 2) 여성외식

탈북여성들의 여성외식을 알아 보기 위해서 여성의 삶과 밀접한 7가지 항목을 물어 보았다. 남녀의 순결문제, 결혼의 비중, 여성의 인생관, 남성에 대한 의존도, 남아선호 사상, 자녀양육의 문제, 남성들의 가사노동 견해 등이다. 특히 이 항목은 남한 여성들의 의식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였던 질문<sup>15)</sup>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해 보았다. 대체적으로 탈북여성들의 여성외식에 있어서 연령이나 결혼유무, 탈북시기 등이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우선, 순결문제에 있어서 탈북여성들의 대답은 두가지이다. 대다수가 남녀가 다 지켜야 한다고(89.0%) 생각하고, 그 외에는 남녀 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10.4%). 그들에게 순결은 여성에게만 강요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연령과 결혼유무에 상관없음을 볼 수 있다. (표 11참조)

〈표 11〉 남녀의 순결문제

단위 : %

	여자는필수 남자는불필요	남녀다지켜야	남녀불필요	기타	총계
탈북여성(29명)	0.0	89.6	10.4	0.0	100.0
남한여성(310명)	3.9	66.8	16.5	12.8	100.0

15. 박진숙, 백옥경, 황은자, “한민족 여성의 삶과 불일치 관한 의식” -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에 살고 있는 해외 한민족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87

두 번째, 탈북여성들의 89%는 결혼이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29%가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7%만이 결혼은 굴레이므로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본다. (표12참조)

〈표 12〉 결혼의 비중

단위 : %

	결혼은 원수	결혼은 선택	굴레이므로반대	기타	총계
탈북여성(29명)	24.0	69.0%	7.0	0.0	100.0
남한여성(310명)	14.8	79.0	3.0	3.3	100.0

세 번째, 탈북여성들의 62%가 여성은 현모양처이면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며, 31%가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7%가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표13참조)

〈표 13〉 여성의 행복한 인생

단위 : %

	현모양처	현모양처+ 사회적 성공	사회적 성공	기타	총계
탈북여성(29명)	31.0	62.0	7.0	0.0	100.0
남한여성(310명)	3.6	75.1	12.5	8.9	100.0

네 번째,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남편과 자식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48%, 여성 스스로의 삶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여성이 41%, 자식이 여성에게 절대적이라고 답변한 여성이 11%이다.

이를 남한 여성의 답변과 비교해볼 때, 탈북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부부중심적 사고라기 보다는 가정중심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자식이 여성에게 절대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특징은 남한에서 자식없이 남편하고만 사는 경우라는 점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연유한게 아닌가 추측된다. (표14참조)

〈표 14〉 남편과 자식의 비중

단위 : %

	남편과자식은 절대적	남편이 절대적	자식이 절대적	스스로의 삶이 중요	기타	총계
탈북여성(29명)	48.0	0.0	11.0	41.0	0.0	100.0
남한여성(310명)	38.4	8.8	9.1	35.7	8.1	100.0

다섯 번째,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3%이며,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38%이다. 반면에 39%가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없으면

말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남아선호사상은 강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남한 여성의 답변과 비교해볼 때, 가계지출의 의미 또한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표15참조)

〈표 15〉 남아선호사상

단위 : %

	양자를들여서라도 대물이어야	말이대신 대물어울수도	대물잇는것은 중요하지않음	기타	총계
탈북여성(29명)	3.0	59.0	38.0	0.0	100.0
남한여성(310명)	3.6	75.1	12.5	8.9	100.0

여섯 번째, 탈북여성의 62%가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을 주로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24%가 탁아소 등 전문기관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머니가 전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14%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양육을 탁아소가 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모두 1998년 최근에 탈북한 여성이라는 점이다. (표16참조)

〈표 16〉 자녀양육의 전담자

단위 : %

	어머니	아버지	부모모두	탁아소 전문기관	기타	총계
탈북여성(29명)	14.0	0.0	62.0	24.0	0.0	100.0
남한여성(310명)	1.0	0.0	92.7	2.6	3.6	100.0

일곱 번째, 탈북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반대하여도(94.1%), 경제적 여건이 좋아도(100%) 여성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남자가 가사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탈북여성의 70.6%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여성은 23.5%이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여성이 5.9%를 차지한다. (표 17참조)

〈표 17〉 남자가 가사노동하는 것에 대하여

단위 : %

	전적으로찬성	찬성	찬성도반대도아님	반대	전적으로반대	총계
탈북여성(34명)	23.5	47.1	5.9	23.5	0.0	100.0

### 3. 사회문화생활

#### 1) 사회활동의 정도와 인간관계

탈북여성들이 생활하면서 가족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정부관계자(9명, 26.5%), 다른 탈북자들(7명, 20.6%), 종교인(7, 20.6%) 순이다. 특히 남한생활에 정착한 기간이 긴 여성보다는 귀순한지 오래되지 않은 여성이, 종교를 가진 여성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이 정부관계자와 더 가깝다.

〈표 18〉 가족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

단위 : 명

	정부관계자	탈북자들	종교인	직장동료 학교친구	이웃사람	가까운 사람없음	사회단체 인
전체(34)	9(26.5%)	7(20.6%)	7(20.6%)	4(11.8%)	3(8.8%)	3(8.8%)	1(2.9%)
97년이전	1	5	3	3	1	0	1
97년이후	8	2	4	1	2	3	0
종교있음	4	6	7	4	3	2	1
종교없음	5	1	0	0	0	1	0

이는 정부보호시설의 생활과 2년동안의 보호기간에 만나는 정부관계자들의 역할이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 정착하는데 주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탈북여성들이 어려운 임이나 고민이 생길 때 의논하는 대상으로 가족 외에 정부관계자를 두 번째로 꼽고 있다는데서도 드러난다. 아울러 탈북여성들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27명, 79.4%) 탈북여성의 92.6%가 정부보호시설 직원의 소개 또는 남한 정착과정에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재기가 되어 종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탈북여성들이 탈북과정과 남한정착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남한생활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종교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남한생활에서 종교생활은 심리적 안정(38.2%)이나 남한사람을 교제하는데(11.8%) 유용한 대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보조금이나 물품제공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탈북여성들은 종교활동 외에는 특별히 사회활동이나 문화시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대학이나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탈북여성들은 3명에 불과하고 9명의 탈북여성들이 강연회에 다닌다고 응답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하는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에서도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이 노래방이나 영화관, 전시관을

가본 경험이 없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한다.

일요일날이나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주로 가사일을 하거나 집에서 특별한 일없이 쉬며, 주로 가족들과 함께(41.2%) 시간을 보낸다고 대답한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는 경우에는 교인들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41.2%)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탈북여성의 반 이상이 (51.9%) 1주일에 한번 정도 교회를 가는 것으로 보서는 실질적으로 남한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횟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나이가 탈북여성들의 35.3%가 남한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25.5%가 그저그렇다, 25.5%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탈북자의 관계에서는 그저그렇다가 35.3%, 별로 어렵지 않다가 32.4%, 전혀 어렵지 않다가 17.5%, 조금 어렵다 11.8%, 매우 어렵다 2.8%로 답변한 것을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탈북여성들이 남한사람과의 교제나 관계에 있어서 어느정도 익숙치 않은 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9 참조)

〈표 19〉 남한사람 또는 탈북자와의 관계

단위 : % (명)

항목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그저그렇다	별로어렵지않다	전혀어렵지않다
남한사람 관계	2.9 (1)	35.3 (12)	25.5 (9)	25.5 (9)	8.8 (3)
탈북자 관계	2.9 (1)	11.8 (4)	35.3 (12)	32.4 (11)	17.6 (6)

탈북여성들은 북한여성과 남한여성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여성들은 의리가 있고 단순한데 비하여 남한여성들은 겉으로는 아주 친절한데 마음 속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자세한 것은 4-2) '남한여성에 대한 인식', 참조)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는 남한사람과의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는<sup>16)</sup> 탈북여성의 경우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는 여성 14명 중에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물었을 때 조금 느꼈다가 4명, 그저그렇다가 3명, 별로 느끼지 않았다가 3명, 전혀 느끼지 않았다가 4명이었다. 그리고 탈북자라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여성이 67.4% (23명)이었고, 32.4%가 (11명) 있다고 대답했다.

탈북여성들이 일반 남성 탈북자들과 비교할 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의 빈도가 적기에 그만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러다보니 남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덜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16. 전신숙, "탈북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통일연구』, 제2권 1997.12,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10쪽.

측면에서 볼 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중심성<sup>17)</sup>을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유연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본다. 인관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여성에게서 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남한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정도는 비교적 남한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판단되어지는 종교활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었다. 그러나 97년 이전에 탈북한 여성이 97년 이후에 온 여성들보다 남한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의 보호기간이 끝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하는 탈북여성들의 애로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표 20〉 탈북시기별로 본 남한사람과의 관계    단위 : % (명)

탈북시기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그저그렇다	별로어렵지않다	전혀어렵지않다
97년 이전(14명)	0.0 (0)	64.3 (9)	7.1 (1)	21.4 (3)	7.1 (1)
97년 이후(20명)	5.0 (1)	15.0 (3)	40.0 (8)	30.0 (6)	10.0 (2)

## 2) 일상적 문화생활에서의 어려움 (표 21참조)

〈표 21〉 어려움의 정도    단위 : % (명)

항목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그저그렇다	별로어렵지않다	전혀어렵지않다	없음
결혼	8.8 (3)	38.2 (13)	20.6 (7)	20.6 (7)	8.8 (3)	2.9 (1)
연애	2.9 (1)	23.5 (8)	26.5 (9)	23.5 (8)	20.6 (7)	2.9 (1)
음식	2.9 (1)	52.9 (18)	17.6 (6)	14.7 (5)	11.8 (4)	
의상, 화장	5.9 (2)	35.3 (12)	14.7 (5)	41.2 (14)	2.9 (1)	
주거생활	5.9 (2)	0.0 (0)	35.3 (12)	38.2 (13)	20.6 (7)	
언어	23.5 (8)	35.3 (12)	14.7 (5)	20.6 (7)	5.9 (2)	
생활습관	2.9 (1)	29.4 (10)	32.4 (11)	26.5 (9)	8.8 (3)	
가치관, 사고양식	8.8 (3)	41.2 (14)	26.5 (9)	20.6 (7)	2.9 (1)	
대중문화	14.7 (5)	35.3 (12)	26.5 (9)	17.6 (6)	5.9 (2)	

탈북여성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결혼, 음식, 언어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며 가치관·사고양식의 다름과 대중문화의 이질감도 역시 좀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연애와 생활습관은 그저그렇고, 의상과 화장, 주거생활은 상대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남한에서의 정착기간에 따라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데, 가치관과 사고양식 그리고 생활습관, 대중문화를 제외하고는 97년 이후

17. 여성학자들은 여성성의 특성을 관계중심의 사회적 태도에 두기도 한다.



에 달복한 여성이 97년 이전에 달복한 여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일부 사회문화적인 분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①결혼

첫째 결혼의 어려움이다. 달복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는 중매결혼을 선호하고 연애하는 여성은 여성의 품관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는 여성으로 쉽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남한사회가 자유로운 연애와 개방된 성문화를 가진데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sup>18)</sup> 그러나 남한사회의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달복여성들은 연애는<sup>19)</sup>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혼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52%) 결혼생활의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22.2%) 연애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 달복여성들은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출신 남성(8.8%, 3명) 보다는 남한 출신 남성(61.8%, 21명)을 선호한다.<sup>20)</sup> 그 이유는 남한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을 잘 이해하고 친절하며, 부드럽기 때문이다.(76.2%, 16명) 두 번째 차지한 이유는 남한사회에 정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9%, 4명) 반면 북한출신 남성을 선택한 달복여성들은 모두가 생활습관이나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익숙한 동질성에 우선권을 두었다.<sup>21)</sup>

### ②음식

둘째 음식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남한음식이 덜고 짠 맛이 강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서구식과 인스턴트 음식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재미있는 것은 이와 관

18. 달복여성들은 남한사회의 문제점의 하나로 퇴폐적인 성문화를 지적하고, 자유로운 남녀의 연애관계와 태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 참조.

19. 결혼경험 유무로 본 달복여성들의 연애에 관한 어려움 정도

	어렵다	그저그렇다	어렵지 않다
·결혼경험이 없는 여성(9명) :	33.4%	44.4%	22.2%
·결혼경험이 있는 여성(25명) :	24.0%	28.0%	52.0%

20. 북한출신과 남한출신 남성 둘다 가능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20.6% (7명)이다. 이 질문은 남한체제의 가장 빠른 적응은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현실성과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한 달복여성들의 생각을 엿보기 위함이었다.

21. 달복자들과의 기존 연구는 남성달복자들이 여성권리 의식이 강한 남한 출신 여성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무당감을 가졌으므로 결혼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달복여성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성들과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탈북여성들은 남한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싶어하고 (7명), 음식점을 경영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5명) 특히 97년 이후에 온 탈북여성들의 73%가 음식이 어렵다고 한 반면 그 이전에 탈북한 여성들은 쉽고 어려운 정도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 ③언어

세 번째는 언어의 어려움이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남한 언어 중 외래어를 힘들어하고, 기술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거의 외국인인 점을 불편함으로 지적했다. 한 탈북여성은 남한 사람들이 사투리까지 사용할 때는 정말 외국인과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의 어려움으로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인관계에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남한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언어교육을 원하는 탈북여성은 11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97년 이전에 탈북한 여성들은 97년 이후에 탈북한 여성들보다 언어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언어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은 점점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④가치관과 사고방식

네 번째,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착기간이나 연령 등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지적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한 탈북여성이 남한 학교를 처음 갔을 때 교실에 크게 써어진 '휘어지지 않으면 부러진다'는 문구를 보았는데, 북한에서는 '부러지우정 휘어지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참으로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여성들이 통합이 되면 발생하는 가장 큰 첫번째 문제로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41.2%)을 꼽는다는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⑤대중문화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의 다름이다.<sup>22)</sup> 남한에 대한 정보를 주로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하는 탈북여성들에게는<sup>23)</sup> 언론을 통하여 전파되는, 대중문화의 첨예한 한 단면은 보다 더 생경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거부감이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연령이나 정착기간에 상관없고 그 어려움의 정도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2. 흥미로운 것은 1996년 실시한 서울지역 1002명의 여성들의 설문조사에서 남한여성들은 남북한의 가장 다른 점으로 대중문화를 이야기하였다.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여성들의 통일 의식과 평화관」, 1996, 37쪽.

23. 탈북여성들 34명 중 33명이 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남한사회의 정보를 얻는다.

#### 4. 남한사회의 인지도와 통일외식

##### 1)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탈북여성들은 스스로 남한사회를 잘모르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35.3%), 조금 알고 있다(29.4%), 또는 보통이다(23.3%)라고 생각하는 여성도 꽤 많았다. 그들은 주로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97.1%)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남한사회가 맞춤형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94.1%)

〈표 22〉 남한사회는 맞춤형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단위 : % (명)

	매우그렇다	약간그런편이다	그계그렇다	그렇지않는 편이다	전혀그렇지 않다	계
전체(34)	64.7(22)	29.4(10)	0.0(0)	5.9(2)	0.0(0)	100.0
가구소득						
50만원 이하	71.4	14.3	0.0	14.3	0.0	100.0
-80만원이하	66.7	33.3	0.0	0.0	0.0	
-100만원이하	66.7	33.3	0.0	0.0	0.0	
-300만원이하	50.0	50.0	0.0	0.0	0.0	
탈북시기						
97년이전(14)	42.9(6)	50.0(7)	0.0	7.1(1)	0.0	100.0
97년이후(20)	80.0(16)	15.0(3)	0.0	5.0(1)	0.0	

그런데 이는 가구소득이 낮은 여성보다는 높은 여성이, 정확한 시기가 긴 여성보다는 짧은 여성이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탈출한 후 남한생활의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여성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2참조)

한편 탈북여성들이 보는 남한사회의 주요 문제점은 정치적 과정(41.2%)이며 두 번째로는 퇴폐적인 성문화(20.6%)이다. 일인권위체계에서 다소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정치문화와는 다르게 당권당락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논쟁은 탈북여성들에게 혼란과 국가적 위기감마저 안겨다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퇴폐적인 성문화는 탈북여성의 남편들이 자신의 부인을 사회적으로 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북한 사회와의 뚜렷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도 지역갈등(11.8%), 빈부격차(5.9%), 교육문제(5.9%), 경쟁과 이기심, 물질 우선가치, 낭비, 세금제도, 민족의식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 2) 남한 여성에 대한 인식

남북한 여성의 장단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탈북여성들의 응답은 흥미로웠다. 북한 여성에 대한 장점의 첫번째는 강한 생활력이고, 단점으로는 남자에게 순종적이라는 점, 또는 없다는 대답이었다. 반면 남한 여성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각기였다. 이는 남한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북한과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여성들의 태도를 한눈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또한 한가지 항목이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며, 북한여성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도 한다.

탈북여성들의 말하는 남한여성들의 장점은 대체적으로 친절(4명, 11.8%), 창조력(3명, 8.8%), 예의바름(3명, 8.8%), 공동체 의식(3명, 8.8%), 순박함(2명, 5.9%), 활동성(2명, 5.9%), 강한 자기주장성(1명, 2.9%) 등이며, 단점은 의존성(5명, 14.7%), 낭비와 사치(4명, 11.8%), 이기성(4명, 11.8%), 경쟁성(3명, 8.8%), 거만함(3명, 8.8%), 가정소홀(2명, 5.9%), 예의없음(2명, 5.9%) 등이다. 반면 북한여성의 장점으로는 강한 생활력(10명, 29.4%) - 순박함(6명, 17.6%) - 인내심(5명, 14.7%) - 공동체 의식(4명, 11.8%) - 의리(2명, 5.9%) - 시부모공경(2명, 5.9%) - 가정충실(2명, 5.9%) - 근면성(2.9%), 겸손함(2.9%) 순이다. 단점으로는 순종적(9명, 26.5%) - 없음(9명, 26.5%) - 의존적, 성급함, 자기주장 못함, 교육을 받지 못함, 소극적, 자존심이 썩 (각각 2명, 5.9%) 등의 순이다.

또한 남한여성들은 북한 여성에 비하여 공동체 의식도 좀 낮고, 가족유대감도 조금 낮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도 낮고, 애국심도 낮은 편이라고 본다. 반면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조금 높고, 남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즉 탈북여성들에 비견 남한여성은 개인적 성향이 강한 부분에는 자기성취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민족의식이나 사회공동체 의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에는 다소 소홀한 자제라고 생각한다.

가족유대감에 있어서 조금높음과 조금낮음의 응답률이 다소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데, 이는 IMF 체제에서 여성들이 자식만을 버리고 가출하는 현상과 자식교육에 경쟁

적으로 열을 올리는 여성들의 상반된 모습에서 느끼는 탈북여성들의 양면적 대담이 아닌가 싶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여성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강한 생활력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자긍심을 표현하곤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남한여성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남성에 대한 의존성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되는 듯하다. (표 23 참조)

〈표 23〉 북한여성들과 비교한 남한여성들의 의식정도 단위 : %

	매우높음	조금높음	비슷함	조금낮음	매우낮음	계
공동체의식	14.7	17.6	17.6	29.4	20.6	100.0
가족유대감	14.7	29.4	17.6	35.3	2.0	100.0
직업만족도	17.6	50.0	2.9	26.5	2.9	100.0
결혼만족도	17.6	35.3	0.0	23.5	23.5	100.0
통일에대한열망	5.9	20.6	8.8	38.2	26.5	100.0
결정권여부	32.4	20.6	14.7	26.5	5.9	100.0
애국심	2.9	23.5	20.6	29.4	23.5	100.0

### 3) 여성관련 사회제도에 관한 인식

탈북여성들은 남한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북한여성보다 높다고(55.9%) 생각한다. (표 24 참조)

〈표 24〉 남한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지위 정도 단위 : % (명)

	매우높다	조금높다	비슷하다	조금낮다	매우낮다	총계
비율(인원)	23.5 (8)	32.4(11)	14.7 (5)	20.6 (7)	8.8 (3)	100.0(34)

남한여성들도 북한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남한여성보다 낮다(35.5%)고 생각하지만 눈여겨볼만한 것은 탈북여성들의 응답율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여성들의 지위가 높거나 서로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sup>24</sup> 이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24.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여성의 지위가 남한여성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35.5%, 높다는 여성이 34.7%, 비슷하고 생각하는 여성이 29.8%이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장인보다는 주부가, 북한여성들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한다. 반면 여대학생의 58%가 북한 여성들의 지위가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보다는 직장인에게서 나타난다.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여성들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1996년.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는 남한여성의 북한에 대한 인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탈북여성들은 남한여성들이 북한사회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35.3%), 모르는 편이다(32.4%)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위한 여성들의 일은 첫째가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8명)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물자절약이나 IMF극복이라는 경제적 문제 해결(7명)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북한에 물품을 지원하거나 북한여성을 위해 힘써는 등 서로 도와야 한다고(5명) 말한다. 그외에도 남북한의 적대감을 해소하거나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한 이질과 극복에 힘쓰는 등 여성들이 남북한 화해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거나(2명) 자녀들에게 통일교육이나 민족의식 교육을 해야한다는(2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표 25〉 여성관련사안에 대한 인식

단위 : %

	높다		그저그렇다				낮다					
	탈북여성		남한여성		탈북여성		남한여성		탈북여성		남한여성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41.2	41.2	53.2	41.1	14.7	14.7	27.9	32.3	44.1	44.1	18.9	26.4
지역택아소 설치	70.6	52.9	68.0	12.2	5.9	11.8	23.7	12.0	23.5	35.2	7.3	75.8
남녀고용평등문제	48.0	38.2	64.9	25.5	14.7	35.3	28.8	32.1	45.3	26.4	6.0	41.3
가정폭력방지	67.6	14.7	62.9	28.6	8.8	2.9	30.2	50.3	23.5	82.3	6.5	20.7
성폭력방지	50.0	20.6	68.2	30.7	11.8	11.8	25.4	46.0	38.2	64.7	6.0	22.9
산전산후 휴가 등	32.4	70.6	57.7	44.2	14.7	17.6	29.9	30.3	52.9	11.8	12.4	25.2
가사노동의가치인정	64.7	11.8	68.8	36.0	14.7	14.7	24.2	21.5	17.7	73.5	5.8	42.2

남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관련 제도에 대한 탈북여성들의 체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문제를 아래의 7가지로 분류하여 이에 해결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남북한 각각 알아보았다. 아울러 지난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남한여성들의 이에 관한 조사결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25참조)

탈북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여성문제 해결정도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와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가정폭력방지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북한 사회에서 여성관련 문제 해결은 지역택아소 설치와 산전산 후 휴가제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응답한다. 탈북여성들은 북한은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관련문제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특히 북한 식량난 이후에 택아소 운영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여성의 정치참여경로도 김성애의 탈퇴이후에 위축되었으며, 남성들의 구타가 빈번하나 이를 사회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가사노동은 여성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하였다.

#### 4) 통일 의식

탈북여성들은 주로 5-10년 이후에 통일이 될 것이며(41.2%), 통일은 교류협력에 의해 점진적이고 합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67.6%) 전망하였다. 또한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다는 점에서(50.0%) 좋으나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41.2%)이나 경제위기(35.3%)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5. 종합적 특성

탈북여성들의 남한 생활의 전반적인 실태를 본 결과 북한의 사회적 배경 -당원여부, 학력 등- 은 남한 사회생활문제에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 1) 경제적 측면

①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이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어렵다. 이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의 가장 첫 번째 요소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경제적 문제는 고정적인 직업이나 경제활동이 없는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여성들은 현재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로 직업이 없어서(44.1%), 또는 능력부족으로(17.6%)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취직하는 것이고(44.1%), 기술자격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7.6%).(표25참조) 정부에게 바라는 대책으로도 직업훈련 및 알선이 첫 번째이고(61.2%), 경제적 지원 확대가(20.6%) 두 번째를 차지한다. (표 28참조) 또한 제일 먼저 받기를 원하는 교육이 직업관련 교육이다(1순위 : 14명, 2순위 : 4명) (표29참조)

계속적으로 일의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탈북여성들은 경제적 생활능력도 떨어지고 사회와의 단절이 심화되어, 자신의 가치관을 상실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26〉 남한생활에서 필요한 것 : 1순위

순위	항목	비율(%)	빈도수(명)
1	취직	44.1	15
2	기술자격증득	20.6	7
3	정신적심리적 안정	17.6	6
4	진실된 인간관계	11.8	4
5	결혼	2.9	1
6	자녀양육문제	2.9	1

〈표 28〉 탈북여성이 바라는 정부의 대책

순위	항목	비율(%)	빈도수(명)
1	직업훈련 및 알선	61.8	21
2	경제적 지원확대	20.6	7
3	가정사회생활교육	11.8	4
4	경제정치현황교육	2.9	1
5	기타	2.9	1

〈표 30〉 탈북여성이 원하는 교육 : 1순위

순위	항목	비율(%)	빈도수(명)
1	직업교육	41.2	14
2	요리	14.7	5
3	언어적응교육	11.8	4
4	가정생활교육	8.8	3
5	기타	13.7	8

②지배적이지는 않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에, 남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탈북여성들이 돈을 버는 경우가 반수이므로 탈북여성들은 가정생활에서 중층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4년 이후 탈북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세대주의 취직제공이 보장되지 않아 탈북자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들었고, 남한의 경제난에 따라 더 악화되었다. 결국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정부가 담당한 몫이 여성의 개인적 차원으로 풀려지는 상황을 남한에 와서도 고스란히 답습하고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남편의 불안한 경제적 지위로 인한 남성의 폭력과 정서적 불안을 여성이 감내해야하는 중층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남존여비의 생각을 지닌 북한남성과는 다른 남성관을 경험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③탈북자들의 기존연구에서 탈북자들은 돈의 개념과 소비규모의 조절 능력이 없기에 낭비가 많다고 지적되었지만, 가족과 온 경우에는 다르다. 여성들은 수입이 늘면 저축을 하기 원했고, 주택마련에 고심하면서, 저축을 해서 복한을 돕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2) 사회문화적 측면

①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 사회활동이나 문화 생활은 거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개인의 위미 또는 문화적 소질을 개발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

②거의 모든 탈북여성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입수를 언론에 의존하므로 편협되고 단면적인 남한 사회상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 보다 다양하고 총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위한 인간관계 또는 모임이나 사회문화활동의 부재함이 더 이를 가중시키고 있다.

③탈북여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요 의논 대상은 가족이고 문제해결은 거의 혼자 참는 방식이다. 가정 구성원이 다 힘들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는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서로 힘들므로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④초기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가 탈북여성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외에 가장 가까운 정부관계자의 역할은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

⑤결혼문제에서 탈북여성들은 신중할 태도를 보이나 탈북남성들이 지적하는 예외 사항과는 다른양상을 보인다. 물론 남한에 와서 남한 남성과 결혼하였다는 탈북여성의 한 사례는 여전히 남북한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중심의 결혼형태를 보이는 남한사회에서 탈북여성이 접하는 결혼문제는 탈북남성과 차 별성이 있다.

⑥탈북여성에게 언어, 대중문화의 문제는 다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나 남한사회의 생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소될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문제는 탈북시기와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은 통일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의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⑦탈북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교육외에, 가장 원하는 교육은 언어, 요리, 가정생활에 관한 분야이다. 그 외에 운전면허, 역사, 경제정치현황, 여성 의식, 문화, 미용, 가치관이나 풍습, 미술, 피아노, 컴퓨터, 자녀양육 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0참조)

⑧탈북여성들은 무력통일을 원하지 않고, 점진적 통일을 원하며, 일부는 김정일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남한여성들이 북한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⑨탈북여성들의 여성 의식은 남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사고나 부부중심적 이라기 보다는 가정중심적 사고가 강하다. 또한 현모양처와 사회적 성공을 다 이루는 것이 여성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여성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 3)정서적 심리적 측면

①현재 탈북여성의 뚜렷한 특징은 탈북형태에 있어서 단독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독으로 월남한 탈북자에 비하여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독탈북과 가족동반 탈북과의 비교집단이 없는 관계로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아울러 거의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

②탈북동기에 있어서, 탈북의 상황과 목적지를 분명한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남한에 들어온 여성과 탈북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한 모르거나 사후에 알게된 경우, 아버지 또는 남편, 아들을 따라서 온 여성의 비율은 반반이다. 탈북동기의 주체적 자발성의 여부가 남한생활에 있어서의 적응력과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본 조사연구에서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탈북동기 자체가 또하나의 여성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오랜 남한 생활에서 어떠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하는지는 관심들 필요가 있다.

③탈북여성들은 남한생활에 만족하고, 어느정도 자신있다. (표 31,32참조)

〈표 31〉 남한생활의 만족도

단위 : % (명)

매우만족한다	조금만족한다	그저그렇다	조금불만이다	매우불만이다	총계
26.5(9)	36.2(13)	26.5(9)	5.9(2)	2.9(1)	100.0 (34)

〈표 32〉 남한생활의 자신감

단위 : % (명)

매우자신있다	어느정도자신	그저그렇다	별로자신없다	전혀자신없다	총계
26.5(9)	44.1(15)	14.7(5)	14.7(5)	0.0	100.0 (34)

소득규모에 따라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이 달라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도 있으나<sup>25)</sup>, 탈북여성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남한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있어 한다. 단,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이 더 자신있는 경향을 보인다. 남한생활의 만족감과 자신감은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도나 적응력 여부와는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 일단 남한에 정착한 이상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위치를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또한 볼 수 있다.

⑤본 조사연구에서 대체적으로 탈북여성들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으나, 탈북여성들은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이라고 응답한다. 더욱이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죄책감이 남한사회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한다.<sup>26)</sup>

### III. 맺으면서

#### 1. 지원방안을 위한 몇가지 생각들

##### 1)정부 차원 : 법적 제도적 차원

##### ①관점이 전환이 필요한 때

25. 권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년 연세대 통일연구원.

26. 탈북자들이 겪는 남한생활의 어려움의 이유는 귀업이 없어서(44.1%) - 농작부족(17.6%) -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14.7%) - 아는 사람없음(8.8%) - 외로움(8.8%) - 일이맞지않아서(2.9%) - 정신적 안정이 안됨(2.9%) 순이다.

1996년 9월 조사사업을 실시한 당시에, 탈북자들은 1997년에 개정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착지원시설과 주거, 최저 월 임금액의 100배 상당액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정착금,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나 군함을 가지고 왔을 때 추가되는 보로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이탈 주민후원회의 탈북자들의 취업알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정착금이 200배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가족동반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표현을 보면, 많이 오면 울수록 손때라고 말한다.

결국 탈북여성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은 일회성의 정착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한 지역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직업이 보장되는 것일 것이다. 통북의 경우를 보면 이북주민들이 서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 체제에 따른 사회보장혜택 때문이었다는 보고가 있다.<sup>27)</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하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의식적인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탈북정책과 사업실행 관련자는 가족단위의 세대주 중심의 사고로 탈북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여성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여성탈북자가 증가함으로써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 강연회 주선 등을 할 때도, 그 대상선정에 여성의 참여율을 고려하여야 할 때가 왔다.

## ②탈북여성들의 지식과 경험이 활용돼야

둘째, 이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의 범위를 정치, 국방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확대시켜 현재 탈북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여성연구 등을 위한 자문이나 협조적 위치를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탈북여성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게하고 일정정도의 수입보장도 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탈북여성의 역할과 위상도 마련될 것이다.

## ③북한사회에서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 제공돼야

셋째,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경제적 생활능력을 갖고 일을 했다. 그들 나름대로 기술과 능력이 있다.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남한사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

27. 신윤, 북한 탈출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고찰, 『통일연구』 제2권 1997.12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237쪽.

회를 제공하고 최소한 동일신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 ④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넷째, 보호기간동안 탈북여성들이 받은 교육은 비공격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남한사회생활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일회적인 점이 있었다.(표 31참조) 직업교육에서부터 사회생활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실행은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맡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1〉 교육받은 정도와 도움여부

단위 : 명

항목	예(9%/명)	아니오(9%/명)	도움이 됨	그저그렇다	도움이 많지 않음
언어교육	35.3 / 12	64.7 / 22	58.3	25.0	16.7
직업훈련	35.3 / 12	64.7 / 22	50	25	25
여성희석교육	20.6 / 7	79.4 / 27	71.4	14.3	14.3
경제정치교육	38.2 / 13	61.8 / 21	53.8	30.8	15.4
가정생활교육	23.5 / 8	75.6 / 26	50.0	50.0	0.0
사회생활교육	11.8 / 4	88.2 / 30	100.0	0.0	0.0
봉사활동교육	11.8 / 4	88.2 / 30	100.0	0.0	0.0

#### ⑤ 정부관계자들의 재교육도 필요

다섯째, 탈북여성을 보호하고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들의 현실적 교육이 요청된다. 한 예로 탈북자들의 증가로 수도권 지역의 경찰업무가 폭주하는 까닭에 이제 그 업무를 지방에까지 분산시키는 정책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경험이 부족한 여성 정부관계자들의 미숙함으로 탈북여성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소지가 있게된다. 비단 경찰 뿐 만이 아니라 탈북여성과의 관련업무에 있는 정부관계자들의 권정과 자세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 2) 민간단체 지원 : 사회심리와 인간관계 지원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정부가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또하나의 방안은 민간단체의 역할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보안 유지와 탈북여성들의 신변보호때문에 민간차원의 역할이 한계가 있었지만, 그동안 폐쇄적인 자세를 보였던 점도 사실이다.

### ① 민간단체의 성숙한 평화의식이 필요

지금까지 진행된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의 논쟁 중에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주체를 민간주도로 할 것인가, 정부주도로 할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었다.<sup>28)</sup> 그러나 그 주체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과연 민간단체의 역량과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탈북자들을 위한 후원과 지원프로그램을 맡았던 민간단체는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대북정책의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체들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이 종교활동을 하는데, 남한체제의 우월성과 반공이념에 젖어있는 일부 종교인들의 태도는 탈북여성들에게 상처와 혼란만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탈북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과의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평화의식과 대북의식을 갖추도록 부단히 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 ② 구체적인 생활력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사회활동 촉진, 상담프로그램 등

둘째, 1년간의 보호시설과 2년간의 보호기간이 끝나면 탈북여성들은 심정적으로 혼자서 남한생활을 꾸려가야 한다.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2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탈북여성들의 소원과 관심을 중심으로 취미활동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전문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탈북여성들의 자아정체감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③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셋째, 탈북여성들의 거주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있다. 이러한 점은 탈북여성들간의 관계 형성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에도 좋은 조건이라고 본다. 즉, 탈북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탈북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한 구성원이 되도록 그 지역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연결하여 다양한 교육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민회관의 활용은 지방단체와의 연계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④ 민간단체 활동을 통한 다양한 남한사회의 학습 기회 제공

넷째, 남한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정보를 갖도록 여러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탈북여성들로 하여금 적절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케하고, 필요

28. 이영선 외권, 「탈북자의 삶」,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1996, 오름.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체험케하고,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생활태도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2 과제

본 조사연구의 진전적 생활실태를 시작으로 탈북여성들에 대한 면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 조사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탈북여성들의 사회심리적문제와 여성 의식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여성 의식의 변화는 남한 정착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데 탈북여성들의 실질적인 정착기간이 짧아서 변수에 따른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다. (예:북한에서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였지만, 남한에 정착한 후 자기주장을 조금씩 하게 된 탈북여성들의 의식문제)

둘째, 남북한 여성의 삶과 가치관의 문제를 연구하여 사회통합에서의 실마리를 찾고 여성의 현실적 역할을 찾아보는 것도 또한나의 과제로 남긴다.

---

## 참고자료

- 박종현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12.  
배규현 「통일이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한미국제학술회의, 1195.11.  
신윤, 「북한탈출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고찰」, 『통일연구』 제2권, 1997.12.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오해경,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5.  
윤덕룡, 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년, 연세대 통일연구원.  
이금순, 송정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1997.  
이명선,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총서2, 1996.  
이강호,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의식구조의 비교」, 제5기 민족회해아카데미, 1996.  
전신옥, 「탈북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통일연구』 제2권, 1997.12.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해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연세대 통일연구원.

정명화, “북한이주민의 한국사회응화를 위한 밑거름,” 『통일연구』 제2권, 1987.12.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탈북북한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통일정책포럼회, 1996.11.  
한만길, “북한주민의 통일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내용의 체계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1997.

\_\_\_\_\_, “탈북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5권 2호, 1996.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여성들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설문조사보고서」, 연구총서 7집, 1996.  
이문웅, “남북한사회의 변화와 전통유교문화: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분단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이태용민,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7.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북한의 여성권, 한국여성연구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1992.

장화진, “남북한의 가족제도 및 여성의 역할,” 『분단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조영,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북한의 여성권, 한국여성연구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1992.  
통일부 기획관리실, 『통일부 30년사』, 1999.3





## 탈북여성의 복지와 지원대책

조 흥 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첫째, 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며, 둘째, 탈북여성들의 여성 의식과 통일 의식을 읽어봄으로써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여성으로서 맞는 지경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1987년 이후 탈북한 여성부터 1996년 현재 정부기관에서 보호기간이 끝나고 사회에 편입된 20대 이상 - 70세 이하의 성인 탈북여성 34명(31세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주 내용은 첫째, 경제생활에 관한 것으로 ①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 ② 주거상태, ③ 직업유무, ④ 소독정도와 주요수입원, ⑤ 직업훈련과 취직, 둘째, 가정생활과 여성 의식에 관한 것으로 ①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② 여성 의식, 셋째, 사회문화 생활에 관한 것으로 ① 사회활동의 정도와 인간관계, ② 일상적 문화생활에서의 어려움, 넷째, 남한사회의 인지도와 통일 의식에 관한 것으로 ①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② 남한 여성에 대한 인식, ③ 여성관련 사회제도에 관한 인식, ④ 통일 의식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 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도 도출하였다.

사실상 탈북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양적 연구를 하기에는 현재까지의 여성탈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일정정도의 경향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이성이나 변수에 따른 유의미성을 찾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의미있는 조사결과와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 탈북여성이 갖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라는 점이다. 탈북여성들이 현재 정부에게 바라는 대책을 보면, 직업훈련 및 알선이 첫 번째이고(61.8%), 경제적 지원 확대가 두 번째(20.6%)를 차지한다. 또한 제일 먼저 받기를 원하는 교육이 직업관련

교육이다. 그들이 북한에서 생활할 때는 주부(2명)와 학생(3명)과 무리(2명)을 제외한 27명의 여성들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담당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출이 가장 많은 제1순위가 주거비라고(55.9%) 답변한 것을 보면, 주거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탈북여성들의 일하고 싶다는 욕구는 단순히 현재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만은 아니고, 북한 사회에서 습득된 노동관과 노동의식에서 비롯된 노동을 통하여 자신을 실현하고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자신을 위치 지우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직접적인 대개는 직장생활일 것이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5%가 정부의 알선에 의해서 취직했다고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정부의 알선으로 취직한 여성은 28.6%에 지나지 않았다. 혹시 정부가 취업알선이나 경제적 지원을 탈북자들의 가족단위로 사고함으로써 남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여성을 이차적으로 배제하는 점은 없는지 제고해볼 일이다.

셋째, 탈북자들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탈북자들은 돈의 개념과 소비규모의 조절 능력이 없기에 낭비가 많다고 지적되었지만, 가족과 온 경우에는 다름을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탈북여성들은 수입이 늘면 저축을 하기 원했고, 주택마련에 고심하면서, 저축을 해서 북한을 돕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활동이나 문화생활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개인의 취미 또는 문화적 소질을 개발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의 모든 탈북여성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입수를 언론에 의존하므로 편협되고 단면적인 남한 사회상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탈북여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요 의는 대상은 가족이고 문제해결은 거의 혼자 찾는 방식이다. 특히, 초기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가 탈북여성들에게는 중요한데, 가족 외에 가장 가까운 정부기관원의 역할은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결혼의 어려움이다. 탈북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는 중매결혼을 선호하고 연애하는 여성은 여성의 불관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는 여성으로 크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남한사회가 자유로운 연애와 개방된 성문화를 가진데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여권의 남성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아직도 남성중심의 결혼형태를 보이는 남한사회에서 탈북여성이 걸하는 결혼문제는 탈북남성과 차별성이 있다.

일곱째, 탈북여성들이 보는 남한사회의 주요 문제점은 정치적 과정(41.2%)이며 두 번째로는 퇴폐적인 성문화(20.6%)이다. 일인권위체제에서 다소 획일적이고 일상불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정치문화와는 다르게 당권당락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논쟁은 탈북

여성들에게 혼란과 국가적 위기감이져 안겨다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퇴폐적인 성문화는 탈북여성의 남편들이 자신의 부인을 사회밖으로 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북한 사회와의 뚜렷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탈북여성에게 언어, 대중문화의 문제는 남한사회의 생활기반이 길어짐에 따라 해소될 가능성을 보이지만,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문제는 탈북시기와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 문제는 통일을 바라보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여덟째, 탈북여성들은 무리통일을 원하지 않고, 점진적 통일을 원하며, 일부는 김정일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여성의 첫 번째 역할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을 바로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홉째, 탈북여성들의 여성 의식은 남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사고나 부부 중심적이라기 보다는 가정중심적 사고가 강하다. 또한 현모양처와 사회적 성공을 다 이루는 것이 여성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여성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열째, 탈북여성들은 남한생활에 만족하고, 어느정도 자신있어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러한 점은 일단 남한에 정착한 이상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 여겨진다.

열하나째, 탈북여성들의 심리적 부채를 문제도 경제적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복지 문제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탈북여성들의 심리적 부채를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복에 두고 온 가족의 피력감 등 정서적, 심리적 안정이라고 응답했다.

열둘째, 탈북동기의 주체적 자발성의 여부가 남한생활에 있어서의 적응력과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본 조사연구에서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탈북동기 자체가 도하나의 여성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오면 남한 생활에서 어떠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하는지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 측면에서 현재의 탈북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통일사회 준비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탈북여성들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여성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은 일회성의 정착금 보다 지역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은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노동을 통한 자기 실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경제적 생활능력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기술과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재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 동일선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탈북 및 이주 문제에 대한 종합 장기 대책 법률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 1997년 1월 13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4일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정착지원법은 이전의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정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법 제10조, 제11조 1항); 2) 북한 이탈주민 대책 협의회 설치(법 제6조); 3)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설치 및 법인화(법 제30조) 4) 통일부 장관 주도의 사회적응 교육(법 제15조), 직업 훈련의 실시(법 제16조) 및 취업알선(제 17조); 5) 주거지원 실시 및 정착금 및 보조금 지급(법 제20조 및 제21조), 6) 교육지원(법 제 24조), 의료보호(법 제25조), 생활보호(법 제26조), 7)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법 제22조 제2항 및 제31조) 등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자립, 자활적 요소 보다 물질적 지원과 후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탈북여성들의 남한 정착 문제는 주거지나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적응 지원에 의한 사회적 편리함 및 심리적 이질감의 극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적절한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보호결정이 내려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정착지원법에 의해 건설중인 정착지원 시설에서 시작된다. 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1년간, 그리고 거주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보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응 훈련과 심리, 법률, 직업, 고용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정착지원 시설에 머무는 1년 동안만 실시되게 되어 있다(법률 제30조 1항).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법률 제30조 3항). 여기서의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본 교육을 의미하므로(법률 제30조 2항), 개별화된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집단적인 일반 교육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교육이 아닌 상담 위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적응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착지원 시설에서는 물론이고 거주지 보호기간, 그리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적 프로그램의 실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년간의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실시되는 사회·심리 적응 프로그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거주지 소재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북한 이탈주민 담당 사회복지사가 계속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지역 내에서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한민족 통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역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그리고 종교기관들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기관에 의한 다양한 심리상담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년간의 보호시설과 2년간의 보호기간이 끝나면 탈북여성들은 실질적으로 혼자서 남한생활을 꾸려야 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이다. 따라서 미리 2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민간기관들이 이웃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취미활동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형성해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족동반의 경우이므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상담이나 부부상담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탈북여성들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민간 자원봉사 조직망, 종교기관, 민간 독자가들을 연결하면서 취업분야 상담 및 알선, 주거지 알선, 생활보호 사업과의 연결, 기타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연결, 권익옹호 등 전반적 생활의 안정을 위한 책임 있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탈북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탈북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한 구성원이 되도록 그 지역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연결하여 다양한 교육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 보호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의 탈북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에서부터 사회생활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대책이 필요하다. 탈북여성들이 받은 교육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은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맡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탈북여성을 보호하고 담당하는 경찰, 정부기관원들에 대한 현실적 교육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일곱째, 현재 탈북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여성연구 등을 위한 자문이나 협조적 위치를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여하거나, 남한여성들이 북한을 알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탈북여성들이 갖는 역할수행과 함께 그들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여성 의식과 통일 의식을 중심으로

정 현 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평화연구소·여성학 공동대표)

### 1. 여성 의식

1. 통일 독일의 고혼 : 통일 독일의 경우에는 양쪽 여성들의 여성 의식의 발전 정도를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우선 옛 동독여성들은 노동에 대한 확고한 관점과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수입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옛 서독 여성사이에서는 노동에 대한 의식은 다양하였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결혼이나 출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여성들도 있으나, 반면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종사하는 것이 천성에 맞는 일이라 생각하는 여성도 적지 않았다. 즉 서독여성 내부에서는 여성의 노동 의식에 관한 편차가 매우 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출신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가사노동의 사회화 성취 정도를 토대로 옛 동독에서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독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218조가 여전히 잔존하고, 그래서 서독 여성운동은 218조 철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옛 동독에서는 이미 낙태가 허용되었다.

이에 비해 서독출신의 여성들은 서독에서는 동독에 비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의식의 확산 때문에 가정내의 가부장적 구조가 많이 약화되었고, 남편과 아내사이의 가사분담도 더 진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독 여성들이 여성해방의 측면에서 더 앞서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특히 68년 학생운동 이후 활성화된 여성운동과 그것이 축적한 정치적 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였다.

거기다가 통일 이후 진행되었던 동·서독인사이의 편견과 갈등도 여기에 한 몫을 거들었다.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은 영악하고, 본 밖에 모르고, 거만하다고 생각한 반면,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이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양쪽의 여성운동가



들은 통일후 얼마되지 않아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 통일도 가장 피해를 본 집단은 여성들이다. 낙태금지조항이 부재하던 동독에 까지 218조가 적용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여성들이 일차적인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턱이비가 너무 올라서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 현재 옛 동독 여성들의 취업은 45%인데, 이는 통일전 취업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방어는 수동적이다. 옛 동독지역에서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여성들은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 독일의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통일전이나 통일후에 양측의 여성운동이 얼마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북한 이발여성의 고봉과 문체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는 바로 남북한 여성통합의 시급성이자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토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2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조사결과도 동서독의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북의 여성들이 노동의식과 노동관의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데 비해, 여성외식의 측면에서는 아직도부터 올라오는 자율적인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 의식이 부족한 까닭에 남측 여성에 비해 보수성을 드러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상당 정도 남한 여성들의 여성외식을 수용한 듯하다. (예를 들면 남자가 가사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탈북여성의 70.6%가 찬성) 이런 여성외식의 수용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북한사회에서는 남녀사이의 가사분담이 잘 수용되지 않는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볼 때, 이는 놀라운 발전이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자식보다는 여성 스스로의 삶이 중요하다’는 데에 41%가 응답한 것이나 53%가 ‘아들이 없으면 딸이 대를 이을 수도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진취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탈 여성들의 여성외식도 남한에 비해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토론자는 정상시의 대화를 통하여 북측 여성들 자체의 의식보다는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버지 오히려 풍이 가하는 가부장적 제재가 이들의 행동환경을 좁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기에 이런 문제점을 함께 제기하고 싶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북방문화의 유산 탓인지 재빨리 태도가, 그간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가 남한여성들에게 강요해온 멋내기나 여성성 강조가 남한 여성들의 삶을 상당히 왜곡시킨 것을 감안하자면, 전체적으로 남한여성들이 더 여성외식이 강하다는 결론도 고집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일부 남한여성들이 개방적인 소비문화에 익숙한 것을 그들이 더 높은 여성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3 이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런 통계치가 남한 여성들에 대

한 정확한 조사 및 통계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이탈 여성들의 여성 의식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은 상대적인 비교속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시도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남한여성들 내에서도 여성 운동이나 페미니즘 의식에 접한 정도를 틀러하고 대단히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우리의 조사 자체가 우리 주변의, 즉 여성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이탈 여성들의 여성 의식이 보수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여성 의식을 비교하거나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영리씨의 생활실태조사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매우 신중하다. 그러나 이런 류의 발표에서 문제제기식의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일반화가 어느 정도 시도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설문지 조사가 지나는 한계를 심층면담을 통해서 보완했으면 이 글이 더 돋보였을 것이다.

4. 통일 독일의 비극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경우 진정한 남북간의 내적 통합을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우선 여성운동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여성운동이나 여성권리신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남한 여성이나 남한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매체들이 전달하는 페미니즘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실업 등과 같은 본질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견적이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이해한다면, 여성태방이나 여성지위 상승에 대해 북한 여성들이 올바로 이해하도록 여성운동단체들은 도와야한다. 동시에 동·서독 여성운동간에 벌어지는 반목이 우리 사회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남한의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필요가 있다.

## II. 통일 의식

1. 북한이탈 여성들의 통일 의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로를 입수하는 통로가 (특히 기관원 등을 통해서)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들이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와 통일을 선호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이탈 여성들이 올바른 통일관을 갖도록 도와주거나,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함께 토론하는 과정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진달래와 무궁화'와 같은 여성운동 단체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방향

이 금 순 (홍익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 2~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특별히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현실과 지원방안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됨.
  - 최근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바 가족 전체의 사회적응상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가족구성원은 여성(어머니)일 것임.
  - 따라서 여성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는 경우 가족전체의 적응이 한결 용이해 질 것임.
  -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이 때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은 보호시설내에서 2주~1개월간 실시되어 왔으나, 제반 여건상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시행 이후 총 102명의 탈북자가 사회적응교육을 받음.
  - 1999년에도 1차(1월 25일~2월 26일), 2차(3월 15일~4월 17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이해 및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교육(신공활용, 공공기관 이용법 등)으로 실내교육과 현장실습이 포함됨.
  - 서울 YMCA, 가나안 농군학교, 용성 꽃동네, 새마을 중앙연수원, 서울경수기능대학 등에서 마련하는 특별 교육프로그램과 민간 기업체의 직장 적응 교육에도 참여함(최근 공-사 사회교육기관의 특별 프로그램, 민간기업체의 직장적응교육

프로그램 참가가 추가됨).

- 교육단위는 약15명선임.
- 교육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발한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 북한내의 학력 및 경력뿐만아니라 탈북경로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여건상 성인단위의 사회적응교육만이 실시되어 왔음

- 최근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인대상 사회적응교육은 직업훈련을 받기이전 기본적인 소양교육으로 유지하고, 청소년들은 남한한교육과정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한후 해당학교에 취학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시설보호기간내 사회적응교육도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탈북주민개인별로 지속적인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교육평가 및 요양사항 조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개인별 관심사항을 고려한 신속적인 교육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정은 공통필수과정과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선택과정으로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적인 교육희망사항을 교육과목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기간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관계를 형성하고 적응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새로운 법률은 1년간의 정착지원시설의 보호와 함께 2년간의 거주지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교육과정을 마치고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에 직업, 교육 등 생활전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임

- 거주지보호기간 정착과정에서 실제 부딪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재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교육희망자에 대한 재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여성이탈주민에 대한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프로그램 마련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에 여성이탈주민들을 참여시

켜 우리사회 여성들과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 기본교육에 우리사회내 여성의 지위 및 성과 결혼 등 올바른 여성인식을 교육할 수 있는 과목들이 선정되어 있으나, 여성들에게 우리사회내 여성문제의 실상과 실제 일 선현장에서 다양하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이러한 프로그램의 마련은 여성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통일부와 협조하는 것이 현실적임.
  
- 사회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간, 가족간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은 민간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가족간의 심리적 갈등은 쉽게 드러내고자 하지 않을 것이나, 여성들의 중층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심리상담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상담요원으로 기이탈여성주민의 참여도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이탈주민들을 전체이탈주민들의 상담자로 육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응상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것이며 교육희망사항도 직업교육, 요리 등의 순서인 것을 고려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직업훈련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이탈여성주민을 우선적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탈여성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분야를 찾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 및 계획

김 중 태 (동일부 지원1과 과장)

### 1. 지원현황 (98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역점
  - △정착금·주택지원 등 물질적 지원 △취학·생활·의료보호 등 거주지보호 등의 각종 지원 실시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응교육(17명) 및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12명) 실시
  - 사회적응교육시 「이성과 결혼」 등 여성관련 과목을 통해 민주사회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남녀평등관 등을 교육
  - 정보·비용·조리 등 여성적합 직종에 직업훈련 실시 및 「1인 1자격증」 취득 유도
    - \* 97.14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 본격 실시
-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종교단체(존다클럽, 영락교회 등)와의 결연을 통해 결혼상담·가정생활 상담·취업단선 및 불우자·생계곤란자 지원
  - \* 현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사회에도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장, YWCA연합회장, 경인여자전문대 학장 등 여성이사가 참여하고 있음.



## 2. 향후 지원계획

### < 정부지원 >

- 여성 복원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생계기반 조성, 취업 및 교육·훈련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정착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수준 상향조정 및 생계곤란자 지원 강화(법시행령 개정, 99년부터 시행)
  - 가족단위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의 상향조정(3인가족시 기존 2천3백만원에서 6천만원 수준으로 증액)
  - 사회면입자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월 20-35만원 수준의 생계보조금 지급
    - \* 여성세대주 및 모자가정 등을 우선 지원
- 직업훈련 참여확대 및 훈련전념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신설 지급(30-51만원 수준) 및 여성직합 직종훈련 참여 적극 유도
  -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자격증 취득 권장
  - 취업보장 강화방안 마련(법개정을 통한 취업보장제 등 도입 추진중)
- 정착지원시설 완공후(99년 상반기) 여성·가정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보호기간을 5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우리사회에 맞는 여성권 및 가족관 등 사회·심리적 적응능력을 한층 배양
  - 여성 복원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및 여성단체의 아동·가정문제 등 여성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 \* 동 시설에 여성휴게실, 유아방 등 여성편용시설도 설치 예정

## < 민간지원 >

- o 민간 지원단체(여성 및 종교단체)와의 지원체계 구축
  - YWCA 등 여성단체와의 「1세대 1단체」 결연을 통한 신앙상담, 가정법률상담, 육아, 자녀학습지도, 취업알선
  - 직업훈련 참여 독려 및 「1단체 1인」 취업알선 추진 등
  -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
- o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민간지원단체와의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지원이 중요
- o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계기별 위로행사 개최 및 가정방문·만남의 장·공동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방안 강구 등



##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본 지원방안

정 감 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실시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조사'는 탈북여성의 생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탈북자 관련 연구가 남성중심의 탈북현상이라는 인식하에 탈북여성의 문제가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단지 주제발표에서도 밝혔듯이 조사대상 선정이 관련 부처의 협조하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탈북여성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 조사결과 보다 더욱 열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실태조사를 탈북여성의 전반적 실태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탈북여성들이 남한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활동과 사회문화적 부적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자인 탈북여성들은 물론 정부나 사회단체가 사회통합, 통일을 위한 준비, 여성인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1. 남한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탈북자의 지원주체가 정부나 민간이냐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지역공동체에 참여,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봉사활동 참여유도 등의 민간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탈북여성 82.4%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의 부적응

이유에 대해 탈북여성들은 스스로 직업이 없고 능력부족으로 들고 있고 취업과 직업 훈련에 관한 사회적 지원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의 대다수가 북한 거주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 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상태는 남한사회의 실직자의 어려움과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

즉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동안 쌓아온 숙련과피의 아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상실등이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어렵게 주어진 직업훈련의 기회가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 1) 탈북여성에 대해 공적부조를 통한 생계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탈북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기위해 상담, 고용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 직업훈련의 실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여성실직가장에게 주어지는 직업훈련, 공공근로 참여, 채용장려금 제도과 같은 적극적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 4) 자활공동체에 대한 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 5)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생활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예로 사할이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다소 성가시겠지만, 함께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미래와 평화로운 통일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처리되므로 개인의 의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 9월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 장 최 만 자

조사일시		조사지	
조사원 성명		확 인	
응답자 성명		연락처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응답을 해당번호안에 V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 현재 귀하의 가족 형태는?

- 1)혼자                       2)부부                       3)부부와 자녀  
 4)부부와 웃어른         5)부부, 자녀, 웃어른     6)기타\_\_\_\_\_

2.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은?

- 1)단독주택     2)연립주택(다세대 주택)     3)아파트     4)기타\_\_\_\_\_

3. 귀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귀하의 집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 1)자가     2)전세     3)월세     4)유상임대     5)기타\_\_\_\_\_

4. 귀하는 현재 남한생활에서 주택문제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주택미련                       2)주택구조                       3)주택크기  
 4)주택관리(시설포함)         5)주변환경                       6)기타\_\_\_\_\_

5. 귀하가 북한에 사할 때 주택문제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 1)주택미련                       2)주택구조                       3)주택크기  
 4)주택관리(시설포함)         5)주변환경                       6)기타\_\_\_\_\_

6. 귀하의 혼인상태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조사원 : 구체적으로 내용 기입)

6-1. 북한에서의 결혼 관계는? \_\_\_\_\_

- 1)미혼     2)유배우     3)이혼     4)사별     5)별거

6-2. 남한에서의 결혼 관계는? \_\_\_\_\_

- 1)미혼    —  11번으로  
 2)유배우     3)이혼     4)사별     5)별거 } 2345 답변하신분 —  7번 또는 8번으로  
 6)독신으로 월남

- \* 조사원 : 7번, 8번 문항은 북한남성과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  
7, 8 번의 문항은 보기를 참조하여 한가지의만 기입하세요.  
남한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9번으로, 미혼여성은 11번으로

7. 북한에서 생활할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_\_\_\_\_

8. 남한에 정착한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11번으로**

\_\_\_\_\_

(보기)

- 1)생활습관의 차이 2)인생관의 차이 3)외도 4)구타 5)카출 6)자녀교육방법의 차이  
7)여성다운 강요 8)복종 강요 9)경제적 문제 10)사회체계에 대한 이해차이  
11)친정식구 박대 12)대화 없음 13)성생활 14)의처증 15)기타 \_\_\_\_\_

- \* 조사원 : 9번, 10번 문항은 남한남성과 결혼한 여성만

9. 귀하가 남한 남성과 결혼할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1)시댁의 반대  2)혼수용품 장만  
 3)남한의 혼례법을 몰라서  4)기타 \_\_\_\_\_

10. 귀하가 남한남성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11번으로**

- 1)경제적 문화적 이질감  2)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  3)북한인에 대한 편견  
 4)가부장적 의식  5)개인의 이기심  6)기타 \_\_\_\_\_

- \* 조사원 :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11. 귀하가 결혼을 (다시) 하지 된다면, 어떤 사람과 하고 싶습니까?

- 1)북한출신 남성 -- **11-1번으로**  2)남한출신 남성 -- **11-2번으로**  
 3)둘다 가능  4)기타 \_\_\_\_\_

(\* 조사원 : 1)번 북한출신 남성으로 답하신 분만)

11-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조사원 : 2)번 남한출신 남성으로 답하신 분만)

11-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조사원 :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12. 귀하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한가지씩 고르세요.  
(조사원 :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물어보세요)

12-1. 남편생활에서 \_\_\_\_\_

12-2. 육한생활에서 \_\_\_\_\_

(보기)

1)가족간의 갈등과 불화

2)경제적 문제

3) 주택(거처)문제

4)가족의 건강

5)사생활 보호문제

6)기타 \_\_\_\_\_

• 조사원 : 13번은 (시)부모와 함께 사는 여성에게만 질문

13. 남편에서 정직한 후 생활하면서, 귀하가 귀하의 (시)부모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15번으로

- 1)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       2)연애관과 결혼관       3)웃아침  
 4)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의 역할이나 태도       5)종교생활       6) 음식선호도  
 7)기타 \_\_\_\_\_

• 조사원 : 14번은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에게만 질문

14. 남편에서 정직한 후 생활하면서, 귀하가 귀하의 자녀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15번으로

- 1)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       2)연애관과 결혼관       3)웃아침  
 4)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의 역할이나 태도       5)종교생활       6) 음식선호도  
 7)기타 \_\_\_\_\_

• 조사원 :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15. 남한 사회에서 가족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북한에서 온 사람들       2) 이웃집 사람들       3) 직장동료 또는 학교친구  
 4) 정부기관원       5) 종교인       6) 사회단체인  
 7) 기타 \_\_\_\_\_

16. 귀하는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생겼을 경우,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 우선 순위대로 두가지  
답하세요. 1) \_\_\_\_\_ 2) \_\_\_\_\_

- 1) 혼자서 (해결한다)      2) 가족      3) 직장동료 또는 학교친구  
 4) 정부기관원      5) 종교인      6) 북한에서 온 사람들  
 7) 기타 \_\_\_\_\_

17. 귀하는 힘들고 피로할 때 주로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 1) 혼자 참는다       2) 가족들과 대화한다       3) 가족 외의 사람들과 대화한다  
 4) 오락시설을 찾는다       5) 관람시설을 이용한다       6) 술을 마신다  
 7) 가사일을 한다       8) 기타 \_\_\_\_\_

18. 귀하의 여가시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18-1. 귀하는 지난 일요일 남(최근 현달동인), 누구와 함께 지냈습니까? \_\_\_\_\_  
그리고 또 누구와 지냈습니까? \_\_\_\_\_

- 1) 혼자서       2) 가족과 함께       3) 아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4) 친척과 함께       5)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6) 기타 \_\_\_\_\_

18-2.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

- 1) 열린 빨래나 청소 등 가사일       2) 관람시설 이용       3) 여행이나 소풍  
 4)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등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쉼       5) 취미활동  
 6) 공부       7) 기타 \_\_\_\_\_

19. 귀하의 현재 직업은? (조사원 : 자세히 쓰세요)

- 1) 전업주부  
 2) 부업을 하는 주부(일정시간만 일을 하거나 부정기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 \_\_\_\_\_  
 3) 사무직 \_\_\_\_\_       4) 생산직 \_\_\_\_\_       5) 전문직 \_\_\_\_\_  
 6) 판매직 \_\_\_\_\_       7) 서비스직 \_\_\_\_\_       8) 행정, 관리직 \_\_\_\_\_  
 9) 농수산직 \_\_\_\_\_       10) 학생 \_\_\_\_\_       11) 기타 \_\_\_\_\_

20. 귀하는 남편에 와서 경제적 수입(시간제 수입 포함)을 위해서 현재, 또는 과거에 조금이라도 일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원 : 장연희 또는 방송출연은 제외)

- 1) 현재 일하고 있다 ----- 20-1번으로
- 2) 예전에 일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 ----- 20-7번으로
- 3) 전혀 일해본 적이 없다 ----- 20-12번으로

\* 조사원 : 20-1부터 20-6까지 11번 현재 일하고 있다고 답한 분만

20-1. 귀하의 개인 평균 월 소득은 어느정도입니까? \_\_\_\_\_ 원

20-2.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그치그렇다
- 4)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0-3. 현재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1) 업무능력       2) 수입정도       3) 작업환경
- 4) 성차별 문제       5)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       6) 강대성이 없음
- 7) 기타 \_\_\_\_\_

20-4. 그동안 직장생활 또는 일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 1) 6개월 이하       2) 6개월 - 1년       3) 1-2년
- 4) 2-3년       5) 3-5년       6) 5년 이상

20-5. 이 일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순서대로 1) \_\_\_\_\_, 2) \_\_\_\_\_

- 1) 가족 또는 친척      2) 정부      3) 이웃이나 친구
- 4) 직업소개소      5) 자신이 직접 (자기사업)      6) 기타 \_\_\_\_\_

20-6. 귀하가 일을 하시면서 일의 내용이나 대우면에서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음을 얼마나 느낍니까? ----- 21번으로

- 1) 매우 많이 느낀다       2) 조금 느낀다       3) 그치그렇다
- 4) 별로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조사원 : 20-7에서 20-11까지 2번 이전에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하신 분만

20-7. 귀하는 이전에 직장생활 또는 일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 16개월 이하                       26개월 - 1년                       31-2년  
 42-3년                               53-5년                               65년 이상

20-8. 이 일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순서대로 1) \_\_\_\_\_, 2) \_\_\_\_\_

- 1) 가족 또는 친척                      2) 정부                                      3) 이웃이나 친구  
4) 직업소개소                              5) 자신이 직접 (자기사업)                      6) 기타 \_\_\_\_\_

20-9. 귀하가 일을 하시면서 일의 내용이나 대우면에서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음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 1) 매우 높게                               2) 조금 높게                               3) 그제그렇다  
 4) 별로 높지 않게                               5) 전혀 높지 않게

20-10. 직장생활 또는 일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이 맞지 않아서                       2) 수입이 적어서                               3) 여성을 차별해서  
 4) 결혼 때문에                               5) 후생복지제도 또는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6) 퇴직연계가 어려워서                       7) 기타 \_\_\_\_\_

20-11. 현재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귀하의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21번으로

- 1) 가족의 수입으로                               2) 정부보조금으로  
 3)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4) 기타 \_\_\_\_\_

• 조사원 : 20-12와 20-13번은 3번에 걸쳐 질문 적이 없다고 답하신 분만

20-12. 귀하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2) 여성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니까  
 3)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때  
 4) 집안일이나 자녀양육 문제 때문에  
 5) 학생이므로  
 6) 나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7) 기타 \_\_\_\_\_

20-13. 현재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귀하의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21번으로

- 1) 가족의 수입으로                       2) 정부보조금으로  
 3)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4) 기타 \_\_\_\_\_

\* 조사원 :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21. 귀하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 1) 월급    2) 자영업 소득    3) 장면비    4) 각종 보조금    5) 기타 \_\_\_\_\_

22. 귀대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조사원 : 해당인 모두 기입)

\_\_\_\_\_

23. 다음 항목 중 지출이 많은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주세요. 1) \_\_\_\_\_ 2) \_\_\_\_\_

- 1) 식비                      2) 교육비(학비)                      3) 저축, 보험                      4) 주거비(임대료, 집세)  
5) 의료비                      6) 교통, 통신비                      7) 주택마련                      8) 의류비  
9) 부세상환                      10) 문화생활비                      11) 기타 \_\_\_\_\_

24. 수입이 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 1) 주택마련    2) 학업(기술습득 포함)    3) 저축    4) 관광 및 여가활동  
 5) 생활불편구입    6) 빚 이자 갚음    7) 자녀사교육비    8) 기타 \_\_\_\_\_

25. 귀하 대의 생활정도는 남한에서 대체로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잘 사는 편이다    2) 잘 사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못사는 편이다    5) 아주 못사는 편이다

26. 귀하는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이 집안일 외에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1. 여성이 결혼한 경우 남편은 찬성하지 않지만, 여자가 원래 일하는 경우는?

-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한다    3)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 반대한다    5) 전적으로 반대한다

26-2 경제적 여건이 좋아도 여성도 남성처럼 직장 등을 가셔서 일하는 경우는?

- 1)전적으로 찬성한다                       2)찬성한다                       3)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반대한다                                       5)전적으로 반대한다

27. 귀하는 지금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시겠습니까?

- 1)예                       27-1번으로  
 2)아니오                       27-2번으로

▶ 조사원 : 1) 예라고 답하신 분만

27-1.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조사원 : 자세히 쓰세요)

- 1)사무직                       2)생산직                       3)전문직  
 4)판매직                       5)서비스직                       6)행정, 관리직  
 7)농수산업                       8)학생                       9)기타

▶ 조사원 : 1)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만

27-2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집에서 가사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남편사회에서 여성이 일하기에는 조건이 열악하므로  
 3)남자(남편)들이 반대하기가  
 4)경제적으로 불필요하므로  
 5)기타

28.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직업을 가지거나 일상생활(가사일)을 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2)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3)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한다.  
 4)일상생활 또는 직업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29. 남자가 가사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전적으로 찬성한다                       2)찬성한다                       3)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반대한다                                       5)전적으로 반대한다

30. 귀하께서는 현재 직장생활 또는 학업(학생일경우) 외에 어떠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사원 : 해당번호 다 기입하고, 활동내용 기입)

- 1) 종교활동       2) 이웃 또는 친지와 의 친목활동       3) 사회봉사 또는 단체활동  
 4) 강연회       5) 활동하지 않음       6) 기타 \_\_\_\_\_

- 30-1. 종교활동은 어느정도 하십니까?     매일     매주    \_\_\_\_\_ 번  
 30-2. 친목활동은?     매일     매주    \_\_\_\_\_ 번  
 30-3. 사회봉사 또는 사회단체활동은?     매일     매주    \_\_\_\_\_ 번

31. 귀하의 현재 종교는?

- 1) 가톨릭     2) 개신교     3) 불교     4) 종교없음     5) 기타 \_\_\_\_\_

조사원 :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만

31-1. 귀하는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까?

- 1) 스스로     2)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3) 남한 정착과정에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았기에     4) 기타 \_\_\_\_\_

31-2. 종교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심리적 안정     2) 남한사람들과의 교제     3) 경제적 혜택  
 4) 정보 습득     5) 신앙생활 자체(구원)     6) 기타 \_\_\_\_\_

32.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 1)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     2) 이웃사람     3) 가족들  
 4) 직장 및 학교동료     5) 정부기관원     6) 종교, 사회단체인  
 7) 가족 외 북한에서 온 사람들     8) 기타 \_\_\_\_\_

33. 귀하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남한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모르는 편이다     5) 전혀 모른다

34. 귀하는 남한이 참 좋은 만큼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35. 귀하가 생각하기에 남한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2가지)

1) \_\_\_\_\_, 2) \_\_\_\_\_

- 1)지역갈등      2)남녀차별      3)정치적 과열      4)빈부의 격차  
 5)민족의식부재      6)물길우선의 가치      7)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8)경쟁과 이기심  
 9)퇴폐적인 성문화      10)기타 \_\_\_\_\_

36. 귀하는 아래 사항에 있어서 북한여성에 비해 남한여성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높음      조금높음      비슷함      조금낮음      매우낮음

- |                                   |                             |                             |                             |                             |                             |
|-----------------------------------|-----------------------------|-----------------------------|-----------------------------|-----------------------------|-----------------------------|
| 36-1. 공동체의식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6-2. 가족유대감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6-3. 직업만족도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6-4. 결혼만족도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6-5. 통일에 대한 열망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6-6. 주체외식<br>(결정권여부, 남성에 대한 의존도)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6-7. 애국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37.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남한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지위가 북한 여성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높다       2)조금높다       3)비슷하다       4)조금낮다       5)매우낮다

38. 귀하는 남한사회에서 아래의 문항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기입해 주세요.

매우높다      조금높다      그저그렇다      조금낮다      매우낮다

- |                             |                             |                             |                             |                             |                             |
|-----------------------------|-----------------------------|-----------------------------|-----------------------------|-----------------------------|-----------------------------|
| 38-1. 여성의 정치참여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8-2.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8-3. 남녀고용 평등문제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8-4. 가정폭력방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8-5. 성폭력 방지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8-6. 산전산후 휴가 등<br>여성의 건강보장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 38-7. 가사노동 가치 인정            | <input type="checkbox"/> 1) | <input type="checkbox"/> 2) | <input type="checkbox"/> 3) | <input type="checkbox"/> 4) | <input type="checkbox"/> 5) |



30. 귀하는 남한여성과 북한여성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하나의 써주세요.(보기참조)

	장점	단점
30-1. 남한여성	_____	_____
30-2. 북한여성	_____	_____

보 : 공동체 의식, 협동심, 창조력, 순박함, 인내심, 의리, 근면성, 겸손함, 자율적  
기 : 거만함, 외론적, 성급함, 이기적, 경쟁력, 순종적, 예의바름, 적극성, 기타

\*조사원 : 통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40.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1) 현 정부 임기동안                       2) 5-10년                       3) 10년-20년  
 4) 20년후                                       5) 불가능하다                       6) 기타

41. 귀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볼 때 민족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1) 무력통일                                       2) 독일식의 경제적인 흡수통일  
 3)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 합리적 통일                       4) 기타 \_\_\_\_\_

42. 귀하는 민족이 통일이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위기                                       2)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  
 3)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 위축                       4) 정서, 문화적인 이질감  
 5) 북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소외  
 6) 월남인과 월북인들의 부부관계 미정리에 따른 인간관계 혼란  
 7) 기타 \_\_\_\_\_

43.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국                       2) 단일민족 회복과 민족자주성 확보  
 3) 이산가족 상봉                                       4) 진정발발 방지  
 5) 북한주민 생활향상                       6) 기타 \_\_\_\_\_

44. 귀하는 북한사회에서 아래의 문항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기입해 주세요.

	매우높다	조금높다	그저그렇다	조금낮다	매우낮다
44-1. 여성의 정치참여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4-2. 탁아소 설치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4-3. 남녀고용 평등문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4-4. 가정폭력방지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4-5. 성폭력 방지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4-6. 산전산후 휴가 등 여성의 건강보장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4-7. 가사노동 가치 인정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5. 귀하는 남한여성들이 북한사회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모르는 편이다                       5) 전혀 모른다

46.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여성들의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원 : 남한생활의 어려움과 만족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47. 귀하는 현재 남한 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조금 만족한다                       3) 그저그렇다  
 4)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48. 귀하는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다음 사람에 대해 어느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그저그렇다	별로어렵지않다	전혀어렵지않다
48-1. 돈벌기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2. 취직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3. 결혼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4. 연애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5. 음식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6. 의상과 화장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7. 주거생활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8. 언어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9. 생활습관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10.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11. 노래, 춤, 영화등 대중문화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12. 남한사람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8-13. 다른 탈북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49. 귀하는 남북한이 생활습관과 풍습이 어느정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다르다                       2) 조금 다르다                       3) 비슷하다
- 4) 별로 다르지 않다                 5) 매우 다르다

50. 귀하는 탈북자라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    **50-1번으로**
- 2) 없다

• 조사원 : 1) 있다고 답하신 분만

50-1. 있다면 주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 1)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     2)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경우
- 3)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     4)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
- 5) 성적이나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6)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 7) 기타 \_\_\_\_\_

51.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요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능력부족                               2) 일이 맞지 않음                       3) 가처분의 혼란
- 4) 주위의 냉대                           5) 북한가족에 대한 괴롭힘               6) 아는 사람없음
- 7) 외로움                                   8) 직업이 없어서                           9) 만이한 생활자세
- 10) 기타 \_\_\_\_\_

52. 귀하는 남한생활에 자신이 있습니까?

- 1) 매우 자신있다                       2) 어느정도 자신있다                       3) 그저그렇다
- 4) 별로 자신이 없다                       5) 전혀 자신이 없다

53. 현재 남한 사회의 생활에서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고르세요 1) \_\_\_\_\_, 2) \_\_\_\_\_

- 1) 취직하는 것     2) 학업 등을 통한 기술자격을 얻는 것
- 3) 진실된 인간관계     4)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
- 5) 정신적, 심리적 안정     6) 결혼
- 7) 기타 \_\_\_\_\_

54. 귀하는 남편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 받으셨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훈련받은 경험		도움받은 정도		
	예	아니오	도움이 됨	그저그렇다	도움이 않됨
54-1. 언어차이교육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54-2.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54-3. 여성인식교육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54-4. 남한경제와 정치현황교육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54-5. 요리, 자녀양육 등을 위한 가정생활 교육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54-6. 권총상제 등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54-7.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55. 탈북여성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책이 어떤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한경제와 정치현황 교육                       2) 가정 사회생활 교육  
 3) 직업훈련 및 알선                                   4) 경제적 지원 확대  
 5) 기타 \_\_\_\_\_

56. 귀하가 현재 남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쓰세요. (\*조사항 : 54번 보기 참조)

1) \_\_\_\_\_ 2) \_\_\_\_\_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니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 주세요.

57. 귀하의 연령은? \_\_\_\_\_ 세 ( \_\_\_\_\_ 년 출생)

58. 귀하의 학력은?

- 1) 무학     2) 1인년학교                                       3) 고등중학교  
 4) 기술학교(전문학교 포함)               5) 대학     6) 기타 \_\_\_\_\_

59. 귀하는 복원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직업) \_\_\_\_\_

60. 귀댁의 총 월 소득은? \_\_\_\_\_ 원

61. 귀하는 복원에서 당원이셨습니까?

1)예

2)아니오

62. 귀하가 복원에 사실 때 귀하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어느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상층

2)중상층

3)중층

4)중하층

5)하층

63. 귀하는 언제 남한에 오셨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64. 남한에 오신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65. 남한에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총 몇분이 오셨습니까? \_\_\_\_\_ 총 \_\_\_\_\_ 명



